

2011.05.16 미래정책연구실

□ 금년 곡물 생산량 증가, 양우 기상여건이 관건

1. Wall Street Journal(2011.05.06), FAO(2011.05.05) 주요 내용

<식량(곡물) 가격 동향>

- 국제 식량가격은 4월에도 고공행진하여 작년 8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 지속
 - FAO 4월 식량가격지수는 232포인트로 작년 동기보다 36% 높은 수준
 -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**달러 약세, 국제 유가 상승, 기상악화, 파종 지연** 등에 기인
 - ※ 4월 식량 가격 지수는 금년 2월(236포인트)보다 2% 낮고, 3월과는 비슷한 수준
- 특히, FAO 4월 곡물가격지수는 평균 265포인트로 크게 상승했는데, 이는 금년 3월보다 5.5%, 작년 동기보다는 71% 높은 수준임. 반면, 4월 유제품, 설탕, 중유 가격은 3월 대비 하락했으며, 육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.
 - 옥수수 가격 지수: 3월 대비 11% 상승
 - 밀 가격 지수: 3월 대비 4% 상승
 - 유제품 가격 지수: 평균 229포인트, 3월 대비 2.4% 하락
 - 설탕 가격 지수: 평균 348포인트, 3월 대비 7%, 1월 대비 17% 하락
 - 중유 가격 지수: 3월 대비 7% 하락
 - 육류 가격 지수: 3월과 비슷한 평균 172포인트
- FAO의 교역시장부서 책임자인 David Hallam에 따르면, **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곡물 생산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, 재고량도 얼마나 확보되는가에 달려 있다**고 언급함.

<곡물 수급 전망>

- 금년 기말 곡물 재고량은 2008년 식량위기 당시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특히 조곡 재고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한편, 지난 3월 FAO에서 발표한 2011년 곡물 전망치를 제시한 「곡물 전망 및 식량 상황 보고서(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Report)」에 따르면, 2011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가격 강세에 따른 식부면적 증가와 기상호조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.
 - ※ 2011년 밀 생산량은 작년대비 3.5% 증가, 쌀 생산량은 3% 증가 예상
- 하지만, 3월에 발표한 전망치는 기상여건이 좋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출된 결과이며, 작년 6~8월에 발생한 가뭄, 홍수 등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전례를 볼 때, 기상악화에 따른 곡물 수급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.
 - 특히, FAO의 곡물 정부간협의체(The FAO Intergovernmental Group on Grains) 비서관인 Abdolreza Abbassian은 **최근 낮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옥수수 식재 및 생육여건이 좋지 않은 미국** 상황을 언급하면서 금년 옥수수 수급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냄.

2. 시사점

- 금년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예측불허의 기상변수가 존재하여 이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. 더욱이 바이오에너지 생산,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확대로 식량자원 확보 애로 가중 예상
- 따라서 주요 곡물 생산국의 곡물 생육 상황, 기상여건, 국제 곡물 재고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되며, 예상치 못한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입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필요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